

디스플레이 산업강국 “굳히기”

정부, 평판디스플레이 지원 본격화 ... 총 71억2000만원 투입

첨단 평판디스플레이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 제작의 핵심기술인 박막트랜지스터(TFT)용 박막을 제조·평가·가공하고 TFT 제조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5월까지 5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교육과 디스플레이 제작 및 특성평가 분석시설 구축 등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국비 51억원, 지방비 6000만원, 민간 19억6000만원 등 71억2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희대 차세대 디스플레이연구센터(책임자 장전 교수)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1차년도에 8억6000만원, 5차년도에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2-4차년도에 각각 16억3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연구센터에는 클린룸 등 지원시설과 박막증착장비 등 핵심공정 장비가 단계적으로 구축돼 LCD, 유기 EL 등 소형 디스플레이 시제품 제작과 관련부품 및 재료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평판디스플레이 연구기반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누 계
국 비*	5	12	12	12	10	51
지방비**	0.2	0.1	0.1	0.1	0.1	0.6
민 간	3.4	4.2	4.2	4.2	3.6	19.6
합 계	8.6	16.3	16.3	16.3	13.7	71.2

* 산업자원부 ** 동대문구청

1차년도에는 클린룸 등 기초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차년도에는 TFT-LCD 및 유기EL 관련장비를 구축하며, 3차년도에 TFT-LCD 및 유기EL 패널 제조장비를 구축한다. 또 4차년도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특성 측정·평가장비 구축의 과정을 거쳐 5차년도부터 디스플레이 연구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G7사업을 통한 정부의 지원과 산·학·연의 합심된 노력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을 주도하는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성장해 왔으나 핵심 원천기술 부족 및 장비·재료의 수입의존으로 경쟁력의 지속적 강화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자부는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연구개발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해 관련기업의 연구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부품 및 재료 메이커의 창업을 유도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을 양성해 고용창출 및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